

축사



성경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법제연구원이 창립된 1990년은 1987년 민주화항쟁의 결실을 제도화하는 시기였습니다. 1987년 헌법체제를 뒷받침하고 법에 의한 통치, 이른바 법치문화를 시민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국가의 입법정책이라는 다소 생소한 키워드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창립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통해 법령정보의 체계화, 국가 입법정책수립 지원 및 법률문화 향상을 미션으로 하여 지난 30년간 2,500여건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많은 법제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입법정책연구라는 고유한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수행해온 연구 성과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제도화로 결실을 맺고 시스템으로 정착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밤낮 없이 고민하고 토의하여 국가의 입법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끔 잊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연구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음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지난 30년 또한 이러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오늘날 국가입법정책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수행해온 연구 성과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또 다른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연구기관, 나아가 글로벌 법제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사회는 현재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저성장,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기존에 직면하고 있던 도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복합위기는 건강,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민주적 포용과 개방, 혁신과 국제협력의 원리를 통해 뛰어난 방역체계를 운용하여 세계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최종 결실은 제도화·법제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0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에 한 걸음 앞서서 고민하고 토의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이 다른 정책연구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임직원이 원 팀이 되어 내부혁신을 이루고 보다 훌륭한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법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법의 기본 정신은 포용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포용적 법치주의, 포용적 법률문화 향상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원장님과 임직원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